

제27회 무주반딧불축제 성료 100만 관광객 유치 첫걸음

일회용품·바가지요금·안전사고 없는 '3無 축제' 호평... 체험·공연·전시 다채

'자연특별시 무주로의 힐링여행'을 주제로 했던 제27회 무주반딧불축제가 9일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지난 10일 무주읍 등나무운동장 주무대에서 펼쳐진 폐막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장, 유송열 사)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내빈들과 관광객, 그리고 지역주민 등 5천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무주군 학생 태권도시범단 공연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군민의 장 시상식과 제27회 무주반딧불축제 하이라이트 영상 시청, 군민 대합창 '반딧불축제 주제곡'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9일간 무주를 찾아주셨던 방문객 여러분, 그리고 행사장 곳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참여해주셨던 군민 여러분 덕분에 올 축제도 잘 마무리를 했다"며 "대한민국 대표 환경축제로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서 도전했던 일회용품 바가지요금 안전사고 없는 3무 축제를 완성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를 무주반딧불축제 발전과 무주 관광 활성화 토대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여세를 몰아 2024

자연특별시 무주 방문의 해를 선포한다"며 "마음을 모으고 역량을 모아 사랑과 자연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무주를 알리고 방문객들을 무주로 불러 모으자"고 말했다.

무주군은 2024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를 준비하기 위해 각 읍면에서 10명의 주민을 홍보대사로 위촉했으며 1천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고품질 서비스와 △식생활 문화 개선, △관광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또 △정경자연과 향토문화 보호 및 전승에 힘쓰는 한편, △바가지요금과 호객행위 등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 도덕관광, 양심관광을 실천하고 이로써 '더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명품 관광지 무주'를 만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해 각오를 다졌다.

참석자 전원이 '자연특별시 무주, 2024 무주방문의 해' 내용의 슬로건이 새겨진 태울로 성공 기원 퍼포먼스를 선보여 장관을 연출했으며 팔레타 가수 고현주와 윤도현 밴드의 2024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 성공 기원 공연이 이어져 힘을 실었다.

"2024 자연특별시 무주 방문의 해"는

무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이날 선포식은 군민이 주체가 돼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도록 불을 조성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무주군은 무주반딧불축제를 비롯한 덕유산과 태권도원, 반디랜드 등의 무주군 대표 관광자원을 홍보하며 개별 관광객 유치에 주력한다는 계획으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자연특별시 무주'가 보다 확실하게 각인돼 집객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1997년 '자연의 나라 무주'라는 주제로 첫선을 보인 무주반딧불축제는 10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축제, 5년 연속 최우수축제, 2년 연속 대표축제, 그리고 명예문화관광축제로서의 명예를 지켜왔으며 2023 전라북도 대표축제로 선정되며 그 차별성과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다.

올해는 자연특별시 무주로의 힐링 여행을 주제로 '반딧불이 신비탐사'를 비롯한 26개의 체험 프로그램과 2개의 전시 프로그램, 15개의 공연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기념축제를 지향하며 일회용품 바가지요금 안전사고 없는 3무(無)축제를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누리파크에 유럽형 가족정원 조성

장수군이 관광거점 누리파크 일원을 유럽형 가족정원(Familia garden)으로 조성하며, 100만 관광객 유치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2022년 지방소멸기금 10억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누리파크 일원에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가족형 정원을 조성해 인근 시·군은 물론 대전, 광주, 대구 등 대도시 관광객을 유치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이다.

군은 정원에 정원 속의 거실 역할을 할 광장분수, 연꽃정원, 물빛정원, 맨발정원과 함께 마로니에·유럽침엽수 등 다양한 나무와 야생화들이 계절별로 자라게 해 정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장수군은 정원 총괄 디자이너

로 장수군 출신이면서, 한국의 타사 투더로 불리는 임지수 정원가드너를 선정해 정원을 꾸미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그동안 장수 누리파크는 유아 및 어린이들에게 특히 각광받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하며 체류할 수 있는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가족정원 조성으로 장수군민들과 국민들이 굳이 해외를 가지 않아도 유럽형 정원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분들이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제17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에 오셔서 아름다운 정원을 감상해 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 통

진안군, 고향사랑기부제 담례품 공급업체 추가 선정

진안군은 지난 8일 담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 8차 회의를 갖고 고향사랑기부제 담례품 공급업체를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공급업체는 벌초대행 이용권(진안군 산림조합), 숙박시설 이용권(마이산 종합편성 캠핑장, 품안에 stay), 깨/나물(마이리브프고) 등 총 4개 품목, 4개 업체이다.

이번 선정은 공급업체의 안정적 공급 가능성, 시설운영 및 품질의 점성, 사업목적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결정됐으며, 군은 빠른 시일 내 담례품 공급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고향사랑기부제 담례품 등록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제공되는 벌초대행 이용권이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진안=우태민 기자

장수경찰서, 한우랑 사과랑 축제 교통관리 합동점검

장수경찰서(서장 정덕교)는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장수 의안공원 및 누리파크 일원에서 열리는 '제17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장수군과 함께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교통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 7일 장수군청 문화관광과, 농업정책과, 축제 운영팀과 함께 차량증가에 따른 예상되는 교통정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축제장 진출입로 및 외곽 국도변까지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축제는 추석을 앞둔 시점으로 방문객이 증가하여 주차난 및 정체현상이 예상되는 만큼 장수농공단지에 임시주차장을 확보하고 사전 예고 교통안내판을 충분히 설치하여 방문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축제기간 4일 동안은 교통정체가 예상되는 주요 교차로 및 혼잡구간에 소통우주의 탄력적 교통관리에 집중하고, 행사장 내 주차장 및 외곽도로 주요 지점에 경찰, 지자체, 자율방범대, 모범운전자, 경비용역을 배치해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교통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고원트로트페스티벌' 23일 열린다

진안군은 지난 8일 제7회 진안고원트로트페스티벌 기자 간담회를 갖고, 축제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2023진안홍삼축제와 함께 열리는 제7회 진안고원트로트페스티벌은 오는 23일 오후 6시 진안군 마이산북부 특설무대에서 열릴 계획이다.

아름다운 진안고원의 가을밤을 흥과 열정으로 가득 채울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페스티벌에는 최정상 트로트 가수인 송가인, 나태주, 조영철, 송대관, 윤수현, 추혁진, 오로라, 최영철, 연예진, 김다나, 소명, 임재현, 진안홍삼홍보대사인 현숙 등 총 13팀이 함께 한다. 특히 미스터트롯2에서 '진안 아가



씨'를 부른 추혁진과 '2023진안홍삼축제 축제'를 부른 연예진까지 함께해 진안군과 트로트페스티벌의 개최 의미를 더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가수 송대관, 소명, 최영철, 임재현, 오로라 등이 참석해 이번 트로트 페스티벌의 기대감을 높여줬다. /진안=우태민 기자

진안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가져

진안군은 2023년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해 지난 8일 진안문화체육회관에서 여성지도자,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여는 올림 난타팀과 진안 색소폰앙상블팀의 식전 공연에 이어 기념식, 유공자표창, 양성평등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여성권의 신장과 양성평등 분위기 조성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진안읍 김순이, 흥인읍 △동향면 이정례 △안천면 김선순 △동향면 전혜순 △상전면 정경순 △백운면 최기숙 △성수면 이연주 △마령면 이귀례 △부귀면 임동옥 △정전면 이금정 △주천면 정천순 총 12명의 유공자를 표창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또한 여성의 지위 향상과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진안군직실자봉사회(대표 양복임)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특히 2023년 양성평등주간 슬로건인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사회'를 함께 외치며 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함께 만들자는 의미를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무주 안성낙화놀이' 국가지정문화재 넘본다

승격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가져

무주군은 지난 8일 무주군민의 집에서 무주 안성낙화놀이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무주 안성낙화놀이의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지정 검토를 위한 것으로 황인홍 무주군수와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과 두문리낙화놀이보존회원 등 1백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제1부 주제발표에서는 안동대학교 이영배 교수가 "무주지역 낙화놀이 연행의 지역적 특징과 문화적 의미", 안동대학교 한양명 교수가 "하회 선유줄놀이의 전승 활성화: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육성 사업" 소개의 시간을 가졌다. 또 전북대학교 김형근 연구교수가 "시도 무형문화재에서 국가 무형문화재로의 전환, 그 과정과 추진 전략"을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무형문화연구원 함한희 원장을 좌장으로 한 제2부 종합토론 시간에는 안동대학교 이영배 교수를 비롯한 한양



무주군은 지난 8일 무주군민의 집에서 무주 안성낙화놀이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명 교수, 전북대학교 김형근 연구교수, 대구국악협회 김신호 회장, 무형문화연구원 정형호 이사, 한국전통대학교 정성미 교수가 참여해 "무주 안성낙화놀이의 국가무형유산으로 전환 가능성과 전략" 등 이날 발표된 주제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황인홍 군수는 "무주 안성낙화놀이는 전통 불꽃놀이로 무주지역을 넘어 우리 민족의 얼과 지혜, 아름다움이 담긴 문화유산이자 우리의 것으로 지

키고 계승 발전시켜 후손 대대로 물려줘야 할 무형의 자산"이라며 "이 자리를 계기로 독창성을 분석해 차별화하고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까지 가는 성과를 거둘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무주 안성낙화놀이의 정체성을 검토하고 전승과 진흥방안을 모색해 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무주군에서도 문화재 발굴과 보호, 계승, 발전을 위한 노력에 진심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